



2018년 2월 25일(제864호) 시순 제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시순, 돌이심의 시간

교회공동체는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보속할 것을 권유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매일 전해지는 사순 시기의 말씀들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멈추고, 다시 주변을 돌아볼 것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초대가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육하고, 단식하고, 무언가 나를 희생하는 실천거리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다그침은 명예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다그침입니다. 이 다그침은 부담이나, 의무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 나를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돌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머물도록, 내가 끊지 못하는 나의 짐작들을 끊어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어차피 이번 사순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군대에 있는 게 사순 시기인데, 무슨 사순 시기를 지내야 하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돌려 교회의 재촉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영광'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행하는 자선·단식·선행과 같은 회개의 행위는 그리스도처럼 수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돌아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거운 멍에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몸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뜻깊은 사순 시기를 보내기 위해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 서십시오.



이재혁(시도요한) 신부  
진진(육군 1사단) 생당 주임

- 제 1 독 시** 창세 22,1-2.-7.10-13.15-18
- 회 답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 2 독 시** 로마 8,31ㄴ-34
- 복음 보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복 음** 마르 9,2-10
- 영 성 제 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진리를 살다

제대는 교회의 원천이요 머리요 중심이신 그리스도 신비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제대 없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카의 시메온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제대는 전례 거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코린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제대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제직을 통하여 인간 구원과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는 데 필요한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식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도 제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례 거행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제대이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에 있어 그 중심이 됩니다. 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제대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제대의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제대 :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면서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 되는 미사 곧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박해

# 제대와 김실의 관계

시대에는 신자 가정집에 모였고 종교 자유를 얻고 나서는 교인들 모임을 위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당입니다. 성당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기리는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한 공간이었기에 당연히 제대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위에서 성찬 전례가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대가 차지하는 자리가 각별하였기에 교회는 예로부터 제대에 특별한 존경심을 드러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과 같은 형태였으나 점차 돌로 만들어 그 품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는 바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는 돌제단이 적합하였고, 이에 따라 제대에 대한 신자들의 공경심도 커졌기 때문에 항구적인 제대를 선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돌 대신 나무로 만들 경우에도 축성한, 십자가가 다섯 개 새겨진 돌판을 나무 제대 위 홈에 안치할 정도로 제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8세기까지 제대의 모양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교자 무덤 위에 성당을 세우고, 그 중심에 제대를 세우면서 순교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제대와 연관시키게 됨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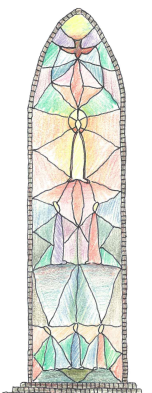
최창덕 F.하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예수님의 변모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하늘에서.

복 음 묵 상



상황이야기

이삭의 희생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아브라함이 쌓아둔 장작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번제물로 바치려는 이삭은(아마도 손이 묶인 채로) 흰목을 드러내고 누워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채다시피 잡으며, 이를 말리고 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아브라함은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그는 29세였으며,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후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화가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무섭다’고 하면서도, 이삭은 천사가 보호해 주어서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가차 없으시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브라함도 아무 의심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렘브란트(1606-1669)  
1635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93 X 133 cm  
에르미타시 미술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2주일: 신시대 박상인 신부

◆ 교구장 동정

- 하삼바로(육군 53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25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2월 27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해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6일(월) 16:00, 해군사관학교 성당

◆ 육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8일(수) 18:00, 화랑대 성당

“군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